

배종훈의
명상카툰

一喜一悲



절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말에 내 마음은 이미 오대산 상원사로 달리고 있었다.

그 절집 마당서 달을 바라보고, 까만 밤을 푸르게 만드는 별을 눈에 가득 담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한 번에 날아가는 상원사와 달리, 먹고사는 일들을 모두 헤치며 차를 몰아 가야하는 상원사는 다른 곳이다. 막바지 휴가를 맞아 강원도를 찾는 여행자들에 끼어 해질녘에야 겨우 상원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여유 있게 마당을 거니는 일은 이미 잊었고 해가 내려 앉아 황금빛으로 변한 탑과 마당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파른 계단을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

문수전(文殊殿) 마당에 올라서고는 상상으로 한 번에 날아온 상원사를 다시 마주했다. 참 고약하고, 변덕스럽고, 번번한 마음이다.

'주말에 무리를 해서 여길 왜 왔나...'했던 그 마음은 이미 없었다.

어느새 상원사에 가서 절집 그림을 그린다고 들떴던 다시 그 순간이 눈앞에 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굴려라, 똥! ㊦

친구, '아름다운 달'과 같은 것

아무리 용을 써도 똥 경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동이는 경단 주위를 둘러보았다. 뒷다리로 굴리느라 나뭇가지를 미처 보지 못했다. 비어져 나온 나뭇가지에 똥 경단이 콕 박혀 있었다. 뒷다리로 들어보고, 머리 뿔로 밀어도 봤지만, 똥 경단은 잠시 위로 올라왔다가 더 깊숙이 박혀 버렸다.

먼 산이 해님을 꼴깍 삼켰다. 부스럭부스럭 풀벌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더 이상은 똥을 들 수도 밀수도 없을 것 같았다. 기적처럼 똥 경단이 쏙 빠져준대도 집까지 굴리고 갈 자신이 없었다. 등딱지가 많이 상했는지 등이 욱신거렸다. 어쩐 일인지 날개도 펼쳐지지 않았다.

"와, 정말 굉장한 똥 경단이구나."

덩치가 무척 큰 쇠똥구리였다. 너석의 머리에는 크고 긴 뿔이 우뚝 솟아 있었다.

"넌 뿔이 정말 멋지구나."

"난 뿔쇠똥구리 힘찬이야. 똥 경단이 나뭇가지에 박혔구나. 이렇게 멋진 똥 경단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누군가 동동이에게 말을 걸고 다정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이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동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네 근사한 뿔로 똥 경단을 밀어 올려줄 수 있니?"

"음, 그것보다는 네가 경단 아래에 구멍을 조금 파는 게 어때? 거기로 들어가서 등으로 경단을 밀어 올리면 내가 뿔로 경단을 뽑아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동동이는 똥 경단 아래에 머리를 박고 등으로 힘껏 밀어 올렸다. 혼자서는 움쩍도 않던 것이 금세 톡하고 뽑혔다.

"고마워. 정말 다행이야. 난 이 경단이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 아기 오리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경단은 부서질 뻔하고, 난 등딱지를 좀 다친 것 같아. 힘들게 지켜낸 경단이라 꼭 집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힘찬이는 똥 경단 위에 뒷다리를 올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힘차게 똥 경단을 굴리면서.

동동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뿔쇠똥구리 힘찬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아차렸다. 힘찬이는 처음부터 동동이를 도와줄 마음 같은 건 없었던 거다. 잘 빚어놓은 경단에만 마음이 있었을 뿐.

분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달라고 했으면 그냥 줬을 것이다. 어차피 힘찬이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동동이 혼자서는 경단을 뽑지 못했을 테니까. 어쩌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동동이는 마음으로 그 경단을 힘찬이에게 주었다. 힘찬이가 훔쳐간 게 아니라 동동이가 준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했다. 동동이는 아주 잠깐 스쳐지나간 친구라는 존재가 아쉬웠다.

어두워진 하늘에는 총총총 은하수가 흐르고 동그란 달님이 환하게 빛났다. 동동이는 달님 같은 경단을 빚고 싶었다. 더럽다고 퉤퉤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단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빛이 나는 그런 경단을 빚고 싶었다.



그림 · 강병호

힘찬이가 사라진 쪽에서 똥 경단이 데굴데굴 굴러왔다. 힘찬이가 돌아오면 경단을 그 너석에게 주겠다고, 동동이는 다짐했다. 그러나 힘찬이가 아니었다. 뿔이 작고 등딱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귀여운 쇠똥구리였다.

"이거, 네 경단이지?"

"조금 전까지는 내 경단이었지."

"뿔쇠똥구리가 훔쳐가는 걸 봤어. 넌 멍하니 그 모습을 보기만 하더구나."

"난 지금 좀 아픈 것 같아. 등딱지를 다쳤거든. 그런데 왜 네가 똥 경단을 가져온 거야? 힘찬이는 어쩌고?"

"종달새가 부리로 꼭 찍어 갔단다. 그 불쌍한 뿔쇠똥구리는 신나게 똥 경단을 굴리느라 종달새가 날아오는 걸 못 봤나 봐. 뿔쇠똥구리가 있던 자리에는 똥 경단만 데굴데굴 구르고 있었어."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경단을 굴릴 수 없을 것 같아. 원한다면 네가 가져."

"경단은 내가 굴려줄게. 넌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줘."

"넌 정말 친절하구나."

"내 이름은 달이야."

달이. 달이. 동동이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동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달이는 이름만 예쁜 게 아니었다. 마음씨도 착하고, 머리에 난 뿔도 작고 귀여웠다.

동동이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걸었다. 때로는 달이와 함께 경단을 굴리고, 때로는 달님을 보고 방향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달님이 일부러 밝혀주는 것처럼 동동이와 달이가 가는 길만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달이는 경단을 동동이의 집 안으로 굴려 넣었다.

"집에 있는 똥 경단들을 모두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러면 나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단으로 만들어 줄 거야."

동동이는 힘차게 머리를 끄덕였다.

"이제 내 등 위로 올라오렴, 착한 쇠똥구리야."

달이는 경단 윗부분에 볼록하게 숨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았다. 어두운 굴속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던 똥 경단은 불을 밝힌 등불처럼 저마다 환하게 빛났다.

동동이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달님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경단은 혼자서는 결코 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먼먼 시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동동이가 동동이가 아니었을 때를, 경단 속 고치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를, 고치가 되기 전 보드라운 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애벌레였을 때를, 애벌레가 되기 전 알이었을 때를, 알이 되기 전 엄마 아빠의 몸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를.

알을 품고 있는 경단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그 작은 알 속에 동동이와 달이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엄마의 엄마와 아빠의 아빠가 살아온 기나긴 시간의 무늬가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동동이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깊고 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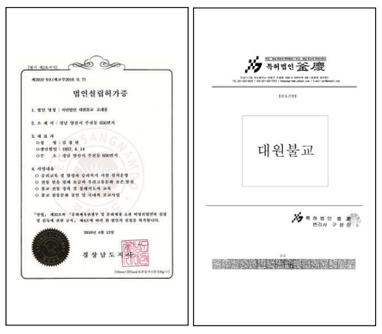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